

# 연꽃·모란·봉황... 전통 사찰 단청의 아름다움

해남 대흥사를 비롯한 사찰 7곳이 지난 해 6월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대흥사 외에도 선암사,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봉정사, 마곡사가 포함됐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해 7-9세기 창건 이후 현재까지의 지속성,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성 등이 세계유산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산사의 건물이 지니는 본래적 가치와 미적인 가치가 그만큼 뛰어나면서도 보편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찰 자체의 건물과 함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 바로 단청문양이다. 이 또한 "지고지순한 장엄예술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세계문화유산 지정 사찰 일부 등을 비롯한 23곳 산사의 단청 세계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사건작가 노재학이 펴낸 '한국 산사의 단청 세계'는 전통 사찰의 아름다움과 단청으로 장식한 문양세계를 다룬다.

산사의 단청벽화들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오늘날까지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노 작가가 이번 책을 펴내게 된 직접적 이유다.

"어둠에서 비상으로 내린 단청문양은 종교장엄의 특성만큼이나 숭고하고 경이로 우며 세련미가 넘친다. 문양과 벽화, 조형 하나하나가 부처께서 펼치신 진리와 자비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한국 산사의 단청 세계

노재학 지음

의 세계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불전건축 중 유일무이한 단청문양이 남아 있는 곳은 200여 곳에 이른다. 저자는 우선 23곳을 선정해 일곱 테마로 나눴다.

1부 '중증무전의 연화장 세계'는 생명을 화생시키는 자비를 표현한 통도사 대웅전, 금담사 극락전(고흥), 내소사 대웅보전(부안) 흥국사 대웅전(여수)을 들여다 본다. 특히 일곱 가지 문양 패턴을 이루고 있는 흥국사 대웅전은 한국 산사 장엄예술의 진면목이 드러나 있다.

저자는 "안들렛기둥 천정은 우물천정이 고 발들렛기둥 천정은 빛반자천정이다. 높은 공간감을 가진 천정에 시문한 단청문양은 일곱 종류로 다채롭다"며 "우물 반자 칸에 팔엽연화문, 연꽃, 모란, 봉황, 넝쿨



단청벽화 역사적·예술적 가치 지녔음에도 조명 못받아

해남 미황사 등 산사 23곳 선정 단청의 모든 것 총망라

일곱 문양 패턴 가진 흥국사 대웅전 산사 장엄예술 보여줘

보상화, 구름 별자리 등 각각각색의 문양을 배려했다"고 평한다.

2부 '법자, 경전, 불보살의 단청작업'에는 무명(無明)을 밝히는 법계의 진리를 표현한 통도사 영산전을 비롯 모두 4개의 사찰이 소개돼 있다. 그 가운데 해남 미황사의 대웅보전 단청장엄의 중요한 특징은 국내 유일의 천불도(千佛圖) 벽화장엄이라는 사실이다.

"기원 전후에 등장한 대승불교의 흐름은 이타적인 중생구제의 보살행이 강조되면서 여러 화신불과 보살불이 등장하는 다불신앙(多佛信仰)으로 전개되었다. 다불신앙은 일대사인연으로 세간에 오신 석가모니불 이외에도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시간상과 시방의 공간성을 초월하여 두루 편재한다는 사상에 기초한다."

3부 '단청 벽화의 향연'에서는 강진 무위사를 비롯 공주 마곡사 등 4개의 사찰을 조망한다. 무위사 극락보전은 그 자체로 성보박물관으로 후불벽화에는 아미타여래 관음보살, 직장보살을 봉안했다. 노 작가가 따르면 "무위사 후불벽화는 조선 초기 벽화임에도 고려화처럼 치밀하게 시문

하고 온화한 중간색을 운영하고 있어 감탄을 자아낸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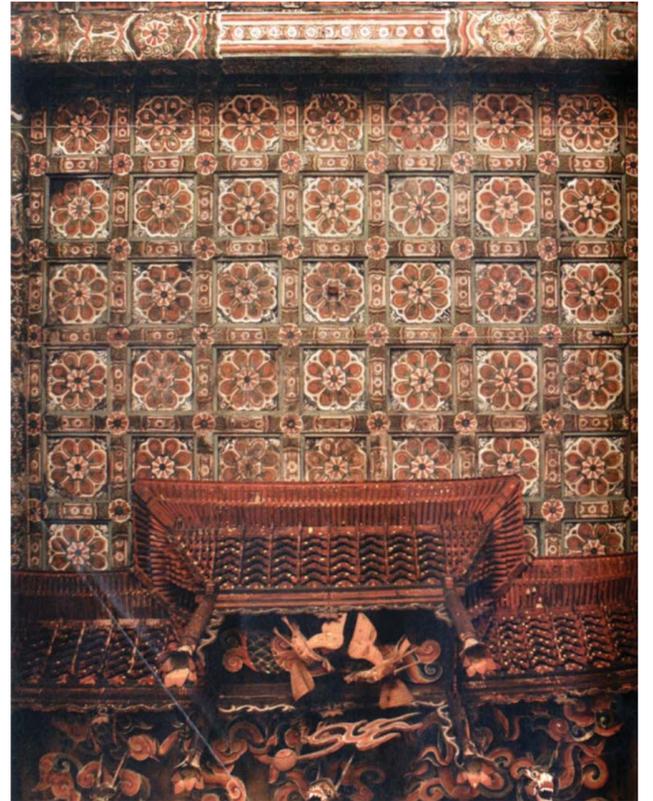
이어 4부와 5부에서는 각각 '주악비천과 공양비천', '용, 봉황, 선학의 상사'를 주제로 8개 사찰의 단청을 조망한다. 그리고 '태극, 별자리, 우주, 천문의 단청 세계'를 주제로 한 6부에는 동양의 세계를 대표하는 문양을 담은 안동 봉정사 지조암 칠성전, 부안 개암사, 고창 선운사 등이 소개돼 있다.

마지막으로 7부 '건축, 뼈대의 윤리 미'는 자연과 건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부석사 무량수전과 법주사 팔상전에 초점을 맞춘다.

노 작가는 "색에 실린 문양들은 각 사찰별 단청문양의 정수들을 오랜 시간 공들여 포착한 장면들"이라며 "단청장과 화가 및 민화작가, 성직자, 미술사 연구자, 디자이너, 답사객들에게 새로운 모티프와 영감을 제공하고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키길 바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술문화3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여수 흥국사 대웅전 내부.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의 원형이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 30-50 클럽

## 홍상화 지음

고도성장의 그늘과 욕망의 거품을 보여준 소설 '거품시대'로 화제를 모았던 홍상화 작가(인천대 국문과 겸임교수)가 신작 소설 '30-50클럽'을 펴냈다.

작품은 과거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연말 선진국 관문이라 불리는 '30-50클럽'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에 일곱 번째 가입한 내용을 화두로 한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역할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대응방식도 제시한다.

작가는 '30-50클럽' 7번째 가입이라는 경이로운 사건을 전면에 내세운다. 앞서 가입한 여섯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두 식민지를 착취한 덕분에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피식민지로서 착취를 당하면서도 자본을 축적한 결과 어려운 관문을 뚫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적과도 같은 성공 요인은 무엇일지를 집요하게 파헤쳐간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소설은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문학적 장치인 셈이다. 제1부와 제2부는 재미 경제학자와 소설가와의 심층 대담이며 제3부와 제4부는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중국 전문가와 소설가와의 깊이 있는 대화록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경제전쟁으로 번진 미·중 간 대결은 어떻게 전개될까. 그리고 그 사이에 선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작가는 중국은 여러모로 패착을 보여줌으로써 그간의 고속 성장세가 꺾일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을 경험할 것을 내다본다.

《한국문화사·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

## 사토 지에 지음

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인간의 본성에 집중할까?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페이스북의 창업자 피터 틸, 나이키의 창업자 필립 나이트, 인스타그램의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 등 스탠퍼드가 키운 혁신적 창업가들은 변화의 중심에 인간의 욕망이 있다고 강조한다. 한 마디로 비즈니스 키워드는 인간의 욕망 그 자체라는 것이다.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입학면접관이자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사토 지에가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을 펴냈다. 저자는 인간을 탐구한 스탠퍼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수업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12명 교수의 명강의를 담았다.

스탠퍼드대 교수들은 혁신, 리더십, 마케팅, 대화술, 협상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등 자기브랜드와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을 경제학, 심리학, 뇌과학 등으로 분석한다. 모든 혁신은 흔들리지 않는 본질에서 시작됐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놀라운 제품, 이론, 연구라 해도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는 어떤 혁신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책은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스토리 경영의 일인자 제니 아커 교수, 결정 피로 연구로 스타 교수로 올라선 조너선 레빈 교수, 혁신의 딜레마 이론으로 유명한 찰스 오렐리 교수 등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에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설명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지식을 활용해 인간의 힘을 기를 수 있는지 분석한다. 특히 성공한 창업가이자 커뮤니케이션의 대가 그로스백 교수, 백악관 연설관으로 활약하며 커뮤니케이션 달인이라 불리는 데이비드 디마레스트 교수 등의 사례 등은 흥미롭다.

《다산북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영화, 여자를 말하다

## 이봄 지음

'영화 속 여자들의 인생 이야기.'

드라마 콘서트 '장기하와 얼굴들 - 정말 별 일 없었는지', '연극 70년간의 연애' 등을 연출한 이봄씨가 23편의 '영화 속 그녀들의 인생'을 담은 책을 펴냈다.

책 '영화, 여자를 말하다'는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결혼이 라는 줄을 타는 여자들'에서는 '우리도 사랑일까?', '매기스 플랜', '소꿉놀이', '인턴' 등 4편이 실렸다. 이들 영화는 남편의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조율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남편과 힘을 균형에 맞추고자 하는 줄타기의 내용이다.

2장 '엄마의 여러 얼굴'에서는 '바바독', '줄리엤타', '컨택트',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코파카바나' 등 5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이 작품들은 모성애를 보여주면서도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깨달음을 준다.

3장 '딸들의 그림자'에서 소개되는 '바닷마을 다이어리', '진저 앤 로사', '레이디 버드'는 딸들이 자아를 찾아가며 내적·외적 갈등 속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과 못한 부모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4장 '어둠 속의 여자들'에 나오는 '레볼루션러리 로드', '미생: 사라진 여자', '테레즈 라캥', '종이달', '블루 제스만'은 억압적인 사회 제도에 종속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여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5장 '나이를 먹는다는 것', 6장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에서는 '45년 후', '다가오는 것들', '빅 아이즈', '피파 리의 특별한 로맨스' 등을 만날 수 있다.

《메이트북스·1만5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KAPID FIRST HALF MATCH-MAKING SESSION 2019

### 2019 상반기

## 해외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 시 : 2019년 2월 28일(목), 10:00~17:00

■ 장 소 : 광주 라미다호텔 5층

■ 주 최 :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 대 상 : 초청 해외바이어 및 국내 광융합 산업 관련 제조업체

■ 주요내용 : 국내기업 및 해외바이어간 수출상담·계약 체결 지원

■ 지원범위 : 국외왕복 항공료(Economic Class 기준) 70%, 숙박 2박

■ 문 의 : 광융합산업본부 마케팅지원부(062-605-9633/ehyang@kapid.org)

■ 기타 해외마케팅관련 행사

행사명	OFC 2019	Tokyo Lighting Fair 2019	러시아CIS 현지 수출상담회	Laser World of Photonics 2019	태국베트남 광융합 수출상담회	LEDTEC ASIA 2019
기간 및 장소	'19. 3. 5~7 /미국(샌디에고)	'19. 3. 5~8 /일본(도쿄)	'19. 3. 8~17 /러시아, 카자흐스탄	'19. 3. 20~22 /중국(상해)	'19. 5. 18~25 /태국, 베트남	'19. 5. 23~25 /베트남(호치민)
행사명	Interlight Moscow2019	ECOC 2019	인도네시아 현지 수출상담회	Power Gen 2019	2019광융합산업포럼	라이다산업 시장개척단
기간 및 장소	'19. 9. 10~13 /러시아(모스크바)	'19. 9. 22~2 /아일랜드(더블린)	'19. 10. 21~25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9. 11. 19~21 /미국(올랜드)	'19. 11. 27~28 /한국(광주)	'19. 11. 30~12. 8 /독일, 프랑스

상기의 기타 해외마케팅 관련 행사에 관심 있는 기업의 경우 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 하시면 좀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광융합산업본부 마케팅지원부(062-605-9632/ebryan@kapid.org))

## International Photonics Convergence Trade Fair

## 2019 국제 광융합 비즈니스 페어

■ 일 시 : 2019. 8. 26(월) ~ 8. 28(수)

■ 장 소 : COEX D홀(3층)

■ 주 관 :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 후 원 :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ASEIC), 한국광기술원,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한국광학회

■ 규 모 : 200개사 250부스

■ 비즈니스 페어 및 수출상담 분야

- 차세대 광·ICT 융합제품, 광통신시스템, 스마트 조명기기, 홀시큐리티 광학기기, 웨어러블기기, 광학·플라스틱 렌즈, 광계측, 센서기기 등

■ 부대행사

- 25개국 200명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2019 국제광융합산업 발전포럼
- OLED조명 국제워크숍
- 광융합산업 육성지원기관 연계 세미나
- 광융합산업 신기술 전시 및 우수제품 개발업체 시상